

## SERMON 23 JULY 2017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만약 내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매일이 봄의 첫 날일 것이다", 라는 노래를 기억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력에 호소하지 하지 않나요 그렇죠! 멋진 봄 햇살에 빛날 수 있는 새로운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인하신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화롭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더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얼마나 압도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

그들이 꽤 괜찮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세상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지에 대해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 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시 라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느끼신다면, 하나님은 개입 하실 것 이며, 하나님께서는 폭력과 고난과 억압과, 땅의 멸망을 막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스스로는 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에게서 읽은 비유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씨 뿌리는 자와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지난 주와 같은 성경봉독을 읽으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의 성경봉독은 뿌리는 것보다 거두어 드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은 밤중에 슬며시 나타나 농부들의 좋은 씨앗들 사이에 잡초를 뿌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야기는 주의 깊게 준비되고, 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잡초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무성한 모습입니다. 예전 집에서 클라이브와 저는 큰 정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양파 잡초에 절망 하곤 했었습니다. 그것은 난데없이 나타나는 것 같았고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잡초는 아름답게 계획된 식물들을 망쳐놓습니다. 그것은 정원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한 남자가 일하는 것을 감상하는 것에 대한 일화를 생각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군요!"라고 행인이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스스로 하실 때에, 얼마나 지저분 했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하고 정원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면에서 꽤나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직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초가 고른 농작물과 함께 자라기 위해 그곳에 잡초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색해 보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혹은 마태가 기록한 믿음의 공동체는 죄, 악, 가해자들 누구든 제거함으로 순수함이 순수하게 지켜지도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끊임 없는 예가 있습니다: 종교재판과 같은 거대한 예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금지된 여러 세기 동안 발생한 여러 분파들이 그 예입니다. 여기 시드니에는 내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파라마타의 경찰 교목이었을 때, 저는 한 하사관의 아내가 이 모임에서 벗어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임에서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그 공동체의 일부분이었던 부모와 형제들과 연락 하거나 만나는 것으로부터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엄격한 부모는 금지령으로 아이들을 억압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 나나요? 그들은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항하고 떠나거나, 부모의 소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많은 변화들이 있고, 그들 모두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틀린 것이 있다는 것과 심지어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두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이 악에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그는 좋은 식물들이 나쁜 것들을 견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여전히 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토양을 공유하고 그들의 뿌리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들을 찢어 버리는 것에 의해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혹은 교회나 혹은 우리의 특정 집단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겸손에 대한 요구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지배 한다면 ..."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모든 나쁜 판단이 만들어 질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태도, 도덕적 행동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을 다룰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 인간애에 대한 더 넓은 이해 이상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태도들은 스스로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같습니다: 성별에 대한 논쟁은 다른 것들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논쟁은 인간의 번영을 파괴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호주인 무슬림 들은 그들이 테러 분자들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이 온 곳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에 우리 정부가 마누스섬이라는 난민촌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에게 수도 물을 정지시켜서 그곳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환영 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마을로 이동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우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범주의 인간을 창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성취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아로부터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판단주의 잡초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악이 꿈틀거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혹은 어떤 기관이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들을 "악한 것"에 속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개인화 할 때, 문제의 현실과 한 단계를 제거한 악마로 간주된 사이에 거리가 생길 것 입니다. 악을 이것처럼 개인화 시킴으로 훨씬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아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주로 악의에 대한 성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마가 사랑의 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아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그러나 아주 자아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을 뛰어 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화적 기대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판단력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향을 뛰어 넘게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들을 열어 주고, 마태가 자주 묘사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비유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가 겪으신 상황들은 이 사랑의 왕국의 또 다른 암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많은 버림받은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을 품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무시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구십아홉 마리의 양을 떠나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시대의 문화와 그가 속한 전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왜곡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교회에게 얼마나 쉽게 기관 의 한 부분으로 되는지 상기 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을 왜곡하고, 얼마나 자주 우리 모두가 힘, 성공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단절을 믿는지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 날지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명성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의 마음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자신들이 잡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들 밑에서 좋은 토양을 발견할 기회를 가져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판단하지 않는 방법을 보여 줄 때 말입니다. 어쩌면 그 주변의 다른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도된 작물들이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단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고통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그의 전적인 개입하신, 예수님의 삶, 그의 왕국 건설에 대한 타협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시는 -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거나 심지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없애고 싶다고 우리를 유혹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뢰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악에 대항하여 일어서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그를 십자가로 인도하더라도요.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궁극적인 힘이라는 것을 이해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세계의 복지가 우리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의존한다는 것에 감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